

아, 그리운 스승님!

문화향기

김강

호남대 교수



충격적인 뉴스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매각됐다는 소식이었다.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반하여 가택을 처분한 아들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며, 거액의 상속세 처리를 다했다고 한다. 사저를 매입한 3명의 주인은 공간 ‘일부’에 고인의 유품을 전시하기로 ‘약속’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동교동 사저는 DJ가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개딸, 운심, 어대명이라는 파벌과는 ‘레벨’이 다른 ‘동교동계’란 말도 여기서 비롯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DJ가 무려 55차례나 가택연금을 당했던 한국 근대정치사의 역사적 장소다. 2009년 8월 18일 타계할 때도 동교동에 머물렀다. 다른 가족의 말처럼 “눈뜨고 역사의 현장이 날아가는 것”을 대한 천지가 지켜본 셈이다. 2024년 김대중 탄생 100주년에 더욱 황당한 경우다.

시간을 되돌려 DJ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조우를 더듬어본다. 2006년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전남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문학박사 학위 수여식과 특강이 있었다. 몸의 절반은 지팡이에 의존한 채 다리를 절룩이면서도 위엄 있게 식장에 들어서서, 구구절절한 그의 삶의 여정이 육체에 고스란히 체화된 듯한, DJ의 모습에 가슴 저미는 연민과 함께 존경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DJ는 참으로 달변이었다. 치밀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에 준거한 주제적이고 창의적 주장에 대강당을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메운 청중들은 동감과 지지의 박수를 수차례나 보냈다.

강연 후 학생들의 질문에 재치 있는 유머를 섞어가며 자신의 견지를 가끔은 타이르듯 때로는 강하게 설득하였다. 그지 없이 적절하게 답변하는 그의 모습은 매서운 정치적 기교와 교묘한 화법, 그리

고 파고들기 힘든 무쇠 심장을 무기로 하는 정치인의 그것이라기보다는 평생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겨낸 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양태와 고통을 헤아려주고 다독여주는 따스한 인정을 지닌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DJ는 죽을 고비를 다섯 번, 한번은 공산 치하에서 나머지는 독재정권하에서 넘겼으며, 가택연금 6년, 감옥에서 십여년을 보냈다고 한다. ‘인동초’처럼 가시덤불을 타고 뻗어난 인고의 삶이다.

민주화의 외진 길로 대통령에 올랐고, 대한민국 최초이자 단 하나뿐인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한 인간으로서 어찌 이 같은 영욕의 세월을 끝내 견디어 낼 수 있었을까. 군사 독재 치하에서 참담했던 육고를 29통의 봉합엽서에 기록한 책으로 1983년 일본에서 처음 발행된 ‘김대중 옥중서신’은 국내 출간 이후 국민의 사상적 지침서이자 생활 철학서가 되었다.

강연 끝자락에 학생을 위한 충고도 잊지 않으셨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깊이 새겨야 할 교훈으로 더없이 적절했다. 당시 적어둔 기록 일부를 들춰보자.

첫째,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천사가 있고, 나만 생각하며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악마가 공존합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천사가 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아내, 자식, 친구, 사회,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웃 사랑에 치중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랐든 오르지 못했든, 부자가 되었든 못되었든, 오래 살았든 못살았든, 인생의 삶에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둘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간직하십시오. ‘무엇이 옳으나 무엇을 해야 하느냐’하는 원리 원칙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판단하되, 이를 실현하려면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돈벌이하는데 지혜를 발휘하듯 능숙한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셋째,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세 번’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

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할 때 먼저 어느 직장이 좋은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가, 내게 정말로 적합한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장을 택하겠다고 하든가, 문제점이 너무 크니까 포기하겠단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논리학의 변증법의 정반합과 같이 세 번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의 일을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외교’하는 국민이 되십시오. 앞서 말한 바처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외교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외교에 관심이 너무 적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외교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부터 사귀기 시작하십시오. 가능한 한 세계 여러 나라를 자주 다니십시오.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벗들이 많이 생기도록 4천 7백만 전 국민이 외교관이 되어야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는 민족주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세계주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은 오늘의 민주주의와 국가적 번영, 그리고 한류의 세계적 진출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큰 봉우리가 될 것입니다. 선배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스승이란 교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어렵게 만나는 분도 아니었다. 바른 삶을 향한 내 생각과 실천을 고무하고 지지하는 존재라면 모두가, 그 모든 것이 스승이었다. 깊은 산과 푸른 강물처럼 참 스승은 우리의 열린 마음속에 항상 존재한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 그리고 번영을 위한 대의보다는 사적이고 은밀한 정치적 욕망으로 꿈틀대는, 혹은 사법적 위기를 애써 모면하려는 정치인들의 기만과 ‘깡깡’에 아, 김대중 선생님이 그저 그립다!

社說

의혹만으로 부끄러운 교육청 채용 비리

신속한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광주 교육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사실도 확인됐지만 책임자 처벌 없이 진실 규명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실 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할 광주교육계가 비리 의혹에 휩싸여 혼란에 빠진 현실이 참담하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감사원이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청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감사관을 최종 임용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일었다. 부적절한 인사 비판이 거세자, 해당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감 등 8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계, 그 교육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광주교육의 미래는 뒷전인 채 자신들과의 친분에 따라 ‘짬짜미’로 감사관을 뽑는 광주시교육청에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비위 관련자가 자리만 옮겼을 뿐, 직위해제도 되지 않았다는 교육단체의 주장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자성을 촉구한다. 당당하다면 감사원 고발과 관련된 인사에 대해 교육청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해당 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도 이 문제가 광주교육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신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가장 투명해야 할 교육계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면 쉽게 불 문제가 아니다.

광주지하상가 위기 경직 행정 탓 아닌가

공익 등 혁신적 방안 고민해야

광주 지하상가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유동 인구 감소, 상인 고령화, 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터다.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 시설과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광주지하상가의 위축이 안타깝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371곳의 금남지하상가 가운데 12%가 넘는 47곳이 공실로 방치돼 있다. 충금지하상가 또한 128곳의 상가 중 37곳이 공실로 남아있다. 전체 499개 점포 가운데 84곳이 공실인 셈이다. 특히 지난 2021년 21개였던 충금지하상가 공실은 지난해 36개로 증가했고, 2022년 14개였던 금남지하상가 공실은 지난해 4개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사정이 낫지만, 수년간 점포가 비어있는 금남2공구와 충금지하상가 주변은 상권이 쇠락한 지 오래다.

안일한 대응과 획일적 발상이 만든 예견된 결과다. 전통적인 매장 판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뀌고, 모바일 거래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고령화된 고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으로는 애초부터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매일같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탄생하고,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이 대세를 이루는 지금, 비좁고 낡은 지하상가를 찾아 쇼핑을 즐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다. 법적으로 양도나 양수, 전대 등이 불가능한 것도 지하상가가 활성화 되기에는 커다란 족쇄다.

지하상가는 교통과 보행자를 돕는 도시의 필수 공영시설이다. 상인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상가와 지하도가 공생하는 방안이 꼭 필요한 이유다. 광주시는 상가를 폐쇄시킬 수 없다면 혁신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래 방치된 상가를 장애인 카페나 실버 빵집, 문화공간 등 공익적 목적의 사회 기여형 상가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광주지하상가의 위기가 꼭 ‘돈’ 때문이 아니고 현장의 필요를 외면한 경직된 행정 탓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서석대



5개의 금메달. 당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2024 파리올림픽 목표치였다. 하지만 대회 경기가 열릴 때마다 금메달 수는 늘었고 예상 수치의 2배의 수확을 견뎠다. 6일(오후 5시 기준) 현재 한국 대표팀이 거둬들인 메달은 금 11개, 은 8개, 동 7 등 총 26개로 전체 순위 6위에 올랐다. 금메달 1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지난 2012년 런던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 두 자릿수를 다시 찍었다. 대회 일정이 절반을 갖 넘어선 상황인 만큼, 금메달 개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 그레이스노트는 지난 4일 한국의 파리올림픽 예상 순위를 8위(금 13·은 9·동 13)로 올렸다. 메달 숫자로는 보면 런던대회(31개)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레이스노트는 개막전에도 한국이 10위(금 9·은 4·동 1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분석이다. 반대로 대한체육회의 판세 분석은 극명하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의 역량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22·삼성생명)이 배드민턴 대표팀에 대한 작심 발언은 큰 충격이다.

그는 결승 경기를 마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에 과거의 문제까지 들춰졌다. 6년전인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배드민턴협회가 작성한 예산서를 보면 선수 6명이 출전했는데 임원은 8명이나 따라갔다. 또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는데,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비용은 두 배 가까이 들었다.

다시 화살은 대한체육회로 쏠린다. 잘 못된 예측과 선수단 관리 부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메달 목표치 분석이 잘못된 것이라면 무능이고 일부러 목표치를 과도하게 낮춘 것이라면 고의적인 면피다.

또한 우리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쟁력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안세영 선수의 주장대로 선수단 관리까지 엉망이라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스포츠 강국이라 할 수 없다. 대회 성적은 선수만의 몫이 아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면 선수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듯한 시스템이다. 체육회의 무능함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